<화학산업의 의식변혁을 추구하며 …>

플래스틱산업 경쟁력 강화는…

플래스틱산업계가 최근의 수출 둔화추세에 대응, 수출을 확대시키기 위한 대응책 모색에 나섰다고 한다.

최근 플래스틱조합 회원사들은 간담회를 갖고 플래스틱산업 현안 및 수출 확대책을 논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료가격 인하, 인력난 해소, 물류비용 감축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는 것이다.

플래스틱기업 사장들은 간담회에서 국내 플래스틱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생산기업 난립에 따른 경쟁격화와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플래스틱제품 소비위축 등을 지적하는 한편 원료가격 상승으로 수출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수립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이 주장하고 있는 문제점은 대략 3가지로, 현재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공통의 문제로 인식돼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국내 플래스틱산업은 아직까지 단순가공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생산기업이 난립함으로써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지적, 산업합리화를 통해 열세기업을 정리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최근 단순노동 기피, 연장근로 거부, 작업환경 취약 등으로 인력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연수생 고용비율을 현재의 10% 선에서 30%로 확대해줄 것을 관계당국에 요청키로 했다. 아울러 병마개, 상자, 필름 등을 도시형 업종으로 지정해주도록 요청하는 한편 지역별 물류센터를 건설, 증가하는 물류비를 절감키로 했다.

둘째, 1회용품 사용규제 및 소비자들의 사용자제에 따라 1300여 생산기업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정부의 합성수지 재질제품의 연차별 감량지침이나 각종 부담금, 예치금 부과 등으로 플래스틱산업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 정부가 규제에 치중하기 보다는 생산적인 대책수립에 적극 나서 플래스틱 고형연료화 시범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고형 연료화설비 확대를 통해 환경문제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고형 연료화 기술을 도입하는 한편으로 설비를 국산화하고 전용보일러를 개발해 처리비용을 절감하며, 지방자치단체와 회수·수집체계 연계를 추진키로 했다.

셋째, 국내 합성수지 메이커들이 내수가격을 수출가격보다 월등히 높게 책정해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동남아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을 향상시켜주고 있다고 지적, 이의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합성수지의 저가수출은 한국산 플래스틱의 수출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외국산 플래스틱 가공제품이 역수입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플래스틱은 제품가 중 원료가격 비중이 60% 선으로 원료가격이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플래스틱기업들은 수출 확대방안으로 석유화학기업들이 확보하고 있는 해외지사망을 활용해 경쟁국의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수출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구, 상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공동발전을 모색할 것도 제기했다.

플래스틱산업계가 여러가지 문제점을 숙의하고 대응책을 마련키로 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국내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은 그동안 영세성, 기술의 낙후, 이로인한 경쟁력 저하 등으로 산업정책 추진에서 항상 소외돼 왔고, 오늘날에는 일본 및 유럽산 고급 플래스틱 가공제품이 밀려 들어오는가 하면 중국·동남아산의 저가제품까지 역수입돼 첩첩산중을 헤매는 기분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이 나름대로의 대응책 모색에 나선 것은 어찌보면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물론 그동안에도 일부 가공기업들이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해온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는 소수의 의견에 그쳤을 뿐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지는 못했었다.

따라서 플래스틱산업계는 산업현안에 대한 논의를 더욱 더 활성화시키는 한편으로 논의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추진방안 마련에 온 힘을 기울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즉,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문제의 근원을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스스로의 허물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

<화학저널 1996/9/9.16>